

교환학생 수학보고서

1. 기본정보

학과	경제금융학과	이름	조*영
파견국가	캐나다	파견도시	밴쿠버
파견대학	랑가라컬리지	파견기간	2018년 8월-12월
귀국여부	12월 28일 귀국		

2. 파견대학 및 수업 전반 사항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i>파견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i></p> <p>위치는 스카이트레인(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으로 다운타운까지 20분으로 가까웠고 홈스테이 가정도 걸어서 20분 거리로 가까웠습니다. 규모는 순천향대보다 조금 작은 것 같지만 평지로 되어있어 작다는 느낌은 별로 들지 않았습니다. 메인 빌딩은 a빌딩으로 홈스테이 오피스 등 주요 오피스와 교실들이 있는데 지어진 지 가장 오래된 걸로 알고 있지만 내부는 깔끔한 편입니다. 도서관은 3층으로 되어있어 공부할 수 있는 공간과 그룹 활동을 할 수 있는 활동실이 있습니다.</p>
2018-2학기 수업	<p><i>본인이 수강한 과목, 각 과목에 대한 평가를 적어주세요.</i> <i>예) 수업내용, 수업방법, 과제, 수업준비, 추천과목, 비추천과목 등</i></p> <p>레벨 테스트를 통해 basic 부터 level8까지 배정되는데 대부분 level2~4로 시작하게 됩니다. 저는 level 4,5를 수강했고 쓰기와 듣기 위주이며 말하기는 수업에서는 많이 하지 않습니다. 또한 선생님마다 편차가 커서 좋은 선생님이 걸리는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재는 매주 프린트하여 나눠줍니다. 그룹 발표는 2번 있고 마지막에 하루 리딩 리스닝 라이팅 시험을 봅니다.</p>

프로그램 운영	<p>외국인 학생을 위한 지원현황 예) 오리엔테이션, 교환학생 참여 프로그램, 담당부서, 담당자명, 상담 프로그램 등</p> <p>ie오피스에 가면 신청을 받아 박물관에 가거나 스케이트, 볼링을 치러 가는 등 leap프로그램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이 있습니다. 오리엔테이션에 페이스북 페이지와 인스타 등을 알려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p>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현지 기후 및 유의점</p> <p>8-9 월은 대체로 맑은 날씨이므로 최대한 많은 야외활동을 그때 하는 것이 좋습니다. 10월부터는 대체로 흐리거나 비오는 날씨가 계속됩니다. 레인부츠가 있다면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p>
안전	<p>현지 안전 상황</p> <p>홈리스는 다운타운에 많지만 위협을 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차이나타운의 몇몇 거리는 홈리스가 매우 많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상대로 시비를 거는 경우도 있으니 저녁시간에는 안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운타운에는 나이트버스가 있어 새벽 3-4시에도 버스를 탈 수 있습니다</p>
숙소	<p>학교기숙사() 홈스테이 (o) 외부 숙소() 기타()</p> <p>기숙사 이름, 숙소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p> <p>홈스테이 가정은 2층으로 되어있었고 홈스테이 가족이 2층 저와 다른 교환학생(멕시코인)이 1층을 사용했습니다. 생활 공간이 분리되어 있어 좋았고 음식도 전반적으로 입맛에 맞았습니다. 그러나 홈스테이 가정마다 다양한 환경이므로 문제가 있는 경우 홈스테이 오피스에 바로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홈스테이 가정은 매우 좋았고 편했습니다. 학교 와도</p>

	가까워서 좋았습니다.
식사	<p>학교 Meal Plan () 학교식당 개별이용 () 홈스테이 (o) 외부식당 () 직접 요리 () 기타 () 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p> <p>대부분 홈스테이에서 저녁으로 먹었던 left over를 따로 통에 챙겨 가서 수업 끝나고 카페테리아에서 먹었습니다.</p>
교통	<p>통학방법, 시내교통, 주요도시 이동 관련</p> <p>걸어서 통학하였고 compass monthly 패스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p>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 원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약 140만원	귀국 일정 변경으로 추가요금 지불
Fees	<p>교환학생 파견 시 Tuition의 경우, 양교 협약에 의해 면제가 됩니다. 학교별로 Tuition 이외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상이한데 본인이 지출한 금액에 대해 상세히 적어주세요.</p> <p>0</p> <p>예) University Support Fee, \$3,000</p>	
보험료	<p>자매대학에서 권하는 보험을 샀는지, 국내에서 해외 여행자 보험을 사갔는지 여부 및 보험 비용을 알려주세요.</p> <p>삼성화재 글로벌케어를 이용했고 약 15만원 정도 였습니다.</p>	
숙소	홈스테이 한 달 850달러	
식비	X 홈스테이에서 제공 했으나 주말에는 친구를 만나 다운타운에서 먹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운타운 기준으로 한끼에 약 2만원 정도입니다.	
교통비	먼슬리패스 사용 98달러	
책값	X 바인더는 달러라마(1달러샵)에서 구매	
기타1		
기타2		
합계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미리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
(분량 자유)*

미국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미리 일정을 조율하고 미국 유심을 구매하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캐나다에서도 미국 선불 유심을 구매할 수 있지만 가격이 한국보다 비쌉니다. 비가 매우 많이 오니 레인부츠가 있으면 꼭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홈스테이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줄 한국 선물도 넉넉하게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고데기나 드라이기는 현지에서도 살 수 있지만(각 약 2만원) 110v 드라이기가 있다면 가져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 도착하여 샴푸, 린스 등 다양한 용품을 살 때는 드럭스토어보다는 Canadian super store 등의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가격이 더 저렴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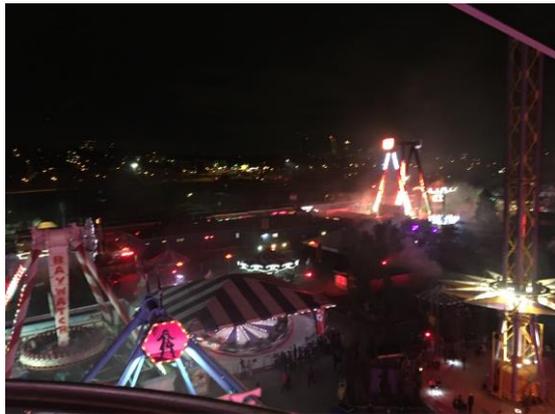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분량 자유)

예상했던 대로 영어실력이 급격하게 좋아지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다양한 나라의 친구들과 친해질 수 있어 좋았습니다. 워킹홀리데이 같은 일하며 생활하는 것과는 다른 느낌으로, 다른 나라에서 공부해본다는 경험은 매우 좋았습니다. 파견 전에는 비용적인 측면에서 부담이 커서 고민도 많고 괜히 신청했나 후회한 적도 있지만 정말 즐겁고 알차게 생활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문화를 접할 수 있어 좋았고 홈스테이 가정도 저에게 잘 해주셔서 즐겁게 밴쿠버에서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할로윈 플레이랜드(놀이동산)



빅토리아 주의사당 야경 (밴쿠버에서 페리타고 갈 수 있는 섬)



록키산맥 투어 3박4일(한 세션 종료 이후 일주일 방학이 주어짐)



할로윈 호박(호박 조각을 홈스테이 가정과 함께함)



스탠리 파크



스케이트장(학교 프로그램으로 저렴하게 다녀옴)